

발행처: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집필:꿈진집필위원단

[학교 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제246호
(2021.09.16.)

면접 준비하기

1. 면접이란?

대학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교과성적과 서류에 갖추어진 학생의 특성 및 잠재능력을 평가하여 지원자가 본교에서 수학(修學)하기가 적당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접은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능력에 대해 평가합니다.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면접평가에서는 지원동기, 학업역량 등 지원 학생의 잠재력과 전공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류평가와 더불어 면접을 통해 전형취지 적합성,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문제해결력(순발력) 등을 확인합니다. 정시모집에서의 면접은 주로 사범대(교직적성면접)와 의대(인성면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면접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합격여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통해 대학별, 전형별로 면접 취지, 면접 방법, 면접 위원수, 면접 평가요소 등 면접의 평가기준뿐만 아니라 전형 설계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과거 면접기출문제(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선배들의 면접후기 등을 통해 대학별로 맞춤형 면접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비대면 면접(현장 실시간 면접, 현장 녹화면접, 녹화영상 업로드)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면접방법에 대해서는 각 대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잘 읽어본 후, 자신이 지원한 전형의 면접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기 바랍니다.

2. 면접의 유형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면접대상자에게 출신 고교나 가정환경(부모님) 등 배경의 영향력을 없애고, 면접대상자의 역량에 집중하여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다음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 당일 교복 착용을 금지하고 수험번호 대신 임시번호를 부여하며 면접 시 개인정보를 말하면 안됩니다.

(1) 일반(서류 기반) 면접

서류기반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 등을 확인합니다. 제출된 서류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서류평가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등을 심층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의 모든 내용이 질문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서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작은 활동 하나도 놓치지 말고 활동 내용과 과정, 배우고 느낀 점 등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기반 면접은 학생의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하므로 수험생의 부담이 다른 면접에 비해 크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분명하므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2) 심층(제시문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은 각 모집단위에서 별도로 출제된 제시문과 문항을 활용하거나, 단과대학별 공통 문항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에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심층 면접형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이를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논술고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층 면접은 기존의 면접고사의 단답식 질의응답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험생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심층 면접형은 먼저 제시문 자료를 주고 복도나 구상실 등에서 답변을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제시문을 근거로 주어진 주제의 배경과 이유를 찾아 인과 관계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구술 면접과 같이 문제를 풀고 풀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면접 전 구상실에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면 풀이의 대략적인 방향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발표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이가 막혔을 때는 면접관들이 다음 단계로 유도하기 위해 힌트를 주기도 하므로, 창의성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이 유형은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학생들의 자료 이해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용이합니다. 평소에 시사와 전공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고, 논술 문제를 말로 풀어 답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학생이라면 심층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집단(토론·토의) 면접

집단 면접은 3명 이상을 한 조로 묶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거나 원인·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은 개별 면접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지식이나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기본적인 자질과 함께 토론·토의 과정에서의 협력, 배려, 리더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면접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나 상호 협력 역량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면접이기에 교대나 사관학교처럼 소통과 배려, 협력의 전문적인 역량이 중요한 학교에서 주로 시행합니다.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면접을 치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만 혼자 많은 시간을 독점해서 말하면 곤란하며 전체 구성원이 적절하게 발언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속한 모둠이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도한 비판 등으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타인을 배척하는 것은 집단 면접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의견 중에 잘못된 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MMI(다중미니면접) 면접

다중미니면접(MMI, Multiple Mini Interview)은 '여러 개의 작은 인터뷰'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면접시험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원자들의 인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자 하는 시험방식입니다. 여러 면접실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순서대로 들어가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거나 제시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답이 있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가치관과 특정 상황에 대한 순발력이 요구됩니다. 상황에 맞는 도덕적으로 딜레마가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인성을 평가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면접 방식입니다. 인성 요소 강화는 대입 면접 전형의 일반적인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수 있는 면접입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인제대, 한림대 등의 의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면접에 MMI라고 직접 표시를 해놓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MMI 형식을 취하고 있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시요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3. 면접 평가요소

대학마다 차이는 있으나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도, 기초수학능력,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리더십, 목표 의식,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1) 인지적 영역 평가요소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준거
기초 수학능력	• 전공 관련 교과목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전공 소양	• 지원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기초 수학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학문적 발전가능성	• 전공선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과 열의 • 학업 이수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수상내용과 전공과의 관계성	• 학문적 발전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전공에 대한 준비도	• 전공 영역에 대한 이해 • 전공 선택 동기 • 진로 계획의 적절성	• 진로계획은 적절하며 지원동기는 확고한가?
전공 적성	• 관련 분야에 대한 열정 • 전공관련 흥미와 소질	• 전공분야에 대한 열정과 흥미 정도는?
창의성	• 지적 호기심 • 응용력 및 적용	• 지적호기심과 응용 및 적응력은?
종합적 문제해결능력	• 논리력과 논리적 사고 • 창의력과 창의적 사고 • 판단력 및 적응력	• 문제해결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2) 비인지적 영역 평가요소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준거
봉사정신	• 봉사정신의 진정성, 지속성, 활동 후 행동변화 • 봉사활동의 태도	• 봉사활동의 진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봉사활동 후의 행동변화는?
협동심	•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 공동목표를 위한 협동심 발휘	• 협동심은 어느 정도인가?
성실성	• 결석 사유 • 동아리활동, 창의적체험활동에서의 책임감	• 성실성은 어느 정도인가?
역경극복 의지	• 가정환경과 자기 극복 의지 • 어려운 일의 극복과정	• 역경극복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도전정신	• 동아리 및 체험활동에서의 실행력 •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 의식	• 도전정신은 어느 정도인가?
목표의식	• 지원동기의 구체성 •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	• 목표의식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 주도성	•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에서의 자기주도적인 활동 정도	• 자기주도성의 정도는?
갈등조정능력	•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및 해결 노력 • 비교과 여러 활동에서의 팀워크 증진 노력	• 갈등조정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개발능력	• 진로체험활동의 영역 및 참여의 적극성 • 자치/적응/행사활동의 내용, 참여도, 성실성	• 자기개발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책임감	• 명확한 역할 인식 • 효과적 관계 구축 • 실행력	• 책임감은 있는가?
면접태도	• 면접에 임하는 태도의 적극성과 자신감 • 인사성과 응답의 적극성 • 바른 자세와 동작, 어투	• 면접태도는 올바른가?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4. 면접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

- (1) 면접의 답변은 두괄식으로 말하며, 단답형보다 종합형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전공을 위해 읽은 책은 무엇 입니까?”라는 질문에 책 이름을 단답형으로 말하는 것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답변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동기 및 배경’, ‘중-중간 과정, 특히 시행착오 극복 노력’, ‘후-결과 및 후속 활동, 배우고 느낀 점’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답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면접은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하는 시험이라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질문 1개당 학생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면접관은 답변 중간에 제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면접에 나올 만한 질문 문항을 선택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여 면접답안지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 (3) 비공식적 말하기가 아니라 공식적 말하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식적 말하기는 비공식적 말하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근거’, ‘의견+예시’ 등과 같이 형식을 갖추어 말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 질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이라는 형식으로 답하거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라는 형식으로 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4) 답변을 구체화시키고 항목화시키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학과에 합격하면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추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학과를 빛내는 학생이 되도록 공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기초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그 이후 소비자 심리학과 홍보, 마케팅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통적 시장과 정보화 시대의 시장 차이, 둘째 달라진 시장 속에서의 마케팅 전략 변화, 셋째 급변하는 시장경제 상황을 고려한 혁신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연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면접관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 (5) 지원대학의 기출문제 파악한 후 출제 예상문제에 대한 답안을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 준비에 있어서 지원대학의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해당 학교의 면접고사 유형과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미리 익혀두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된 면접 자료는 물론 몇 년 전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면접후기 사례집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면접 후기 등의 자료를 모아 예상문제를 뽑아보도록 합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예상문제를 뽑았다면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답변을 할 때에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 면접관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말해야 합니다.
- (6) 모의면접과 동영상촬영을 통해 반복적인 실전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예상답안을 반복적으로 틈틈이 연습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형제, 친구 등을 면접관으로 설정해서 모의 면접을 자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접모습을 스스로 검증하고 싶다면,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거나 또는 연습모습을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 녹화해 자신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몰랐던 자신의 버릇이나 불필요한 태도를 알 수 있고, 동영상촬영 및 분석과정을 통해 교정할 수 있습니다.
토론면접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친구 3~5명이 모여 질문자와 답변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짚어줄 수 있고,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또,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제 면접 상황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7)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면접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대학이나 면접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질문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 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무작정 꼭 뽑아달라는 식의 뻔한 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면접관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마무리 답변을 생각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1. 대입정보포털 대입정보센터 사이트(www.adiga.kr)
2.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사이트(www.jinhak.or.kr)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요강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2022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